

양화사와 초점의 영향권 관계*

조 유 미†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양화문 안의 강 양화사와 약 양화사가 전제적/비전제적 해석과 관련된 영향권 다툼의 과정에서도 약 양화사가 주어이든 목적어이든지 표면 형태에서 VP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전제적 해석만을 받게 되어 양화문에 중의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타동사의 목적어나 비대격 주어 등의 약 양화사가 초점에 민감한 경우에 비전제적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중의적인 문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표면구조상 VP 밖에 위치한 약 양화사라도 초점화되면, 초점투사를 통하여 논리 형태에서 형성된 초점의 영향권(초점 구문) 안에 들어있게 되며, 이때의 초점이 가지는 영향권은 핵 영향권과 일치한다. 즉, 초점은 안에 있는 약 양화사가 핵 영향권 안에서 비전제적으로 해석되도록 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양화사, 초점, 영향권, 약 양화사, 비전제적 해석

* 이 논문은 2007년도 제19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에서 발표논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 교신저자: 조유미,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연구세부분야: 의미론
E-mail: jmocy84@snu.ac.kr

서 론

양화사는 문장에서 각자 자신의 영향권을 가진다. 한 문장에 양화사들이 둘 이상 들어 있을 경우, 이러한 양화사들의 영향권은 의미 해석을 위하여 계층적 구조로 배열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양화사들은 정상 영향권과 더불어 표면 구조의 성분통어영역과 역전된 영향권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양화문은 의미 해석에서 중의성을 가지게 된다.

- (1) ㄱ. 모든 학생이 어떤 사람을 만났다. $(\forall > \exists, \exists > \forall)$
 ㄴ. 모든 학생을 어떤 사람이 만났다. $(\forall > \exists, \exists > \forall)$

이와 더불어 영향권을 가지는 요소로서 또한 초점이 있다. 문장 안의 어떤 부분에 초점화가 일어나면, 초점 연산자에게 주어지는 영향권이 결정되고 의미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양화문에서는 초점의 영향권이 양화사들의 영향권과 함께 순서를 잡아야 올바른 의미 해석을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양화사를 가진 문장에서 초점이 나타날 때, 영향권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선행 연구 개관

양화문

삼분 구조 (tripartite structure)

삼분 구조는 문장을 다음과 같이 연산자, 제한자, 핵 영향권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2) 일반화된 삼분 구조 (Partee 1991)

연산자(operator)	제한자(restrictor)	핵 영향권(nuclear scope)
∇	보통명사	주서술부
always	전제	단언
every	화제	초점

위와 같은 화제-초점(topic-focus) 구조화는 특히 일반 양화 논리에서 양화문을 제한자와 핵 영향권으로 구분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기여한다. (2)에서 연산자는 전칭(∇), 특칭(∃) 등 양화문의 양화의 종류를 나타내고, 제한자는 양화사의 정의역을 제공하고, 핵 영향권은 양화 진술의 핵심으로 해석된다.

Diesing(1992)은 의미 해석에 있어서 논리 형태의 VP를 핵 영향권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VP 안에 남아있는 요소들은 비전제적, 가변적인 해석을 받고, VP 밖에 위치하는 요소들은 전제적, 명시적인 해석을 받는다고 보았다. 전사 가설¹⁾은 의미해석에 관한 것으로, 표면 형태에서 VP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이 논리 형태에서는 양화사 인상(quantifier raising)을 통하여 핵 영향권 밖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반대로 주어 등이 재구성(reconstruction)을 통하여 핵 영향권 안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고 본다.

(3) 논리 형태 (Diesing 1992)

[<u>그 사람은</u> [vP 어떤 사람을 만났다]]
전제적, 명시적 해석 비전제적, 가변적 해석

일반양화사의 전제는 제한자인 명사의 논항의 수 또는 양에 관한 전제로서, 주로 존재 전제(presupposition of existence)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 전사 가설(Mapping Hypothesis): VP에서 유래한 요소들은 핵 영향권으로 전사되고, IP에서 유래한 요소들은 제한절로 전사된다.

(4) Presuppositionality Hypothesis (Diesing 1992)

In natural languages, all lexical items with denotations of type $\langle\langle e,t \rangle, \langle\langle e,t \rangle, t \rangle\rangle$ are presuppositional, in the sense of the following mathematical definition (where δ is a lexical item of the appropriate semantic type, such as a determiner):

δ is presuppositional iff for all $A \subseteq D, B \subseteq D$: if $A = \emptyset$, then $\langle A, B \rangle \notin \text{dom}(F\delta)$.

일반양화사이론의 전제적 해석은 양화문의 명사의 외연이 공집합이 아닌 경우, 문장에 진리치를 부여할 수 있지만, 공집합인 경우에는 진리치를 부여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와 달리 비전제적 해석(아리스토텔레스 해석, 표준해석)은 과전제를 함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양화문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전제가 이미 충족된 것으로 가정한다.

강 양화사와 약 양화사

(5) 'D N is/are N.' (Barwise & Cooper 1981)

단언의 진리치가 모형에 달려있으면 D는 약 한정사,
그렇지 않으면 D는 강 한정사[긍정 또는 부정]

- a. 자동적으로 타당(valid)하면 D는 긍정 강 한정사 (every, most, the, both ...)
- b. 모순이면 D는 부정 강 한정사 (neither, ...)
- c. 모형 해석에 달려있으면 D는 약 한정사 (a, no, three, ...)

삼분 구조는 특정한 “강” 연산자와의 관계에서만 나타난다. 강 연산자는 어떤 함축적인 양화적 힘을 가지면서, 본질적으로 다른 두 논항인 정의역 제한자와 핵 영향권을 취하여 비대칭적(non-symmetrical)으로 처리하는 함수로서 삼분 구조를 가진다. 또한 역동적 접속(dynamic conjunction)도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에, 삼분 구조를 이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두 논항을 대칭적으로 처리하는 단순한 접속 연산자는 본질적인 삼분 구조를 나타나게 하지 않는다. at least three A's are B's와 at least three B's are A's가 의미론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대칭적으로) 분석된다면 at least three와 같은 약 양화사는 삼분 구조를 이끄는 연산자로서 작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삼분 구조에 참여하지 않는 약 양화사도, 어떤 유형-전이 연산을 통해서 구성의 의미의 일부가 되는 어떤 암시적인 강 연산자의 도움으로 삼분 구조를 이끄는 강 구성(strong construction)에서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전제의 차이에 의해서도 두 논항 사이의 비대칭성이 결정될 수 있기에, 약 연산자가 때때로 삼분 구조의 연산자로서 강 구성에서 작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우연적 세계에서²⁾ 강 한정사를 지닌 강 양화사는 전제를 양화사 문장 해석의 필수조건으로 받아들인다. 즉 강 한정사는 강 연산자로서 제한자를 필수 논항으로 취해야 하기 때문에 핵 영향권 밖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약 연산자인 약 한정사를 지닌 약 양화사는 핵 영향권 안에서 비전제적으로 해석되고, 강 구성으로 나타나 제한자에서 전제적으로 해석된다³⁾. 즉, 양화문은 맥락과 상황에 따라 전제적 해석과 비전제적 해석을 혼용하여 해석된다.

초점

Krifka(2007)는 “초점은 언어 표현의 해석에 적절한 대체항들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대체 의미론의 중심적 주장에 따라 초점(focus)을 정의한다⁴⁾. 그리고 표현 자체의 대체항에 관한 표현 초점(expression focus)과 표현의 지시체의 대체항에 관한 지시 초점(denotation focus)으로 구분한다⁵⁾. 그 중 지시 초점은 only, even, 양화

2) Reinhart and Lappin's generalization: (i) In non-contingent contexts, speakers' judgments about presupposition failure and truth-value conform to the standard (nonpresuppositional) analyses of determiners. (ii) In contingent contexts, strong determiners evoke judgments that conform to the presuppositional analysis, whereas weak determiners give rise to mixed judgments that conform sometimes to the presuppositional and sometimes to the standard analysis. (Hein&Kratzer 1998)

3) 강 양화사 most와 약 양화사 at least three가 A와 B를 각각 제한자와 핵 영향권으로 취하는 연산자로서 작용하는 함수를 전제 분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i) $F_{\text{most}} = \lambda \langle A, B \rangle : A \neq \emptyset. |A \cap B| > \frac{1}{2}|A|.$

(ii) $F_{\text{at least three}} = \lambda \langle A, B \rangle : A \neq \emptyset. |A \cap B| \geq 3.$

이때 “ $A \neq \emptyset$ ”가 전제가 된다.

4) “Focus indicates the presence of alternatives that are relevant for the interpretation of linguistic expressions. This is the central claim of Alternative Semantics (Rooth 1985).” (Krifka 2007)

5) “A property F of an expression is a Focus property iff F signals (a) that alternatives of (parts of)

부사, 양상 동사, 부정 등등과 같은 일부 초점-민감 연산자와 연계하여 나타날 때만,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초점-민감 양화사

양화문의 경우, 강 양화사는 초점을 받지 못한다. 이는 항상 전제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하는 강 양화사의 특성 때문이다. 약 양화사는 초점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제로서 비전제적 해석이 수의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박정섭(1999)은 한국어에서는 약 양화사 중에서도 ‘누군가’, ‘무언가’⁶⁾ 등의 몇몇 형태만 초점을 받는 것으로 보며, ‘누군가’가 ‘어떤 사람’보다 의미 내용을 더 많이 가지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누군가/무언가’가 등장하는 양화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누군가/무언가’가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다. 먼저 ‘누군가/무언가’는 의문사 ‘누구/무엇’에 어미 ‘-가’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양화사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의문사는 의문문에서 초점처럼 기능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 (6) 가. 누가 나갔어요?
- 나. 누군가 나갔어요?
- 다. 누굴 만나기만 하면, 말을 더듬는다.
- 르.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말을 더듬는다.

(6가)은 ‘어떤 사람이 나갔는데, 그게 누구냐?’라는 의미와 ‘나간 사람이 있느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서 의문사는 새로운 정보를 요구하며 뒤따르는 담화의 그 자리에 초점이 오도록 이끈다. (6나)은 ‘나간 사람이 있느냐?’라는 의미로서, (6가)의 의미 중 ‘어떤 사람이 나갔는데, 그게 누구냐?’에서 전제로 삼았던 내용에

the expression a or (b) alternatives of the denotation of (parts of) a are relevant for the interpretation of a a.” (a) expression focus / (b) denotation focus (Krifka 2007)

6) 이현우(1995)는 ‘누군가’와 ‘무언가’를 의문사-어미 명사구로서 분류하고 의문사에 활용어미가 연결된 형식이 하나의 단어와 같이 굳어져 마치 하나의 명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명사구로서 정의하고, 이 형식은 본래의 의문문의 성격을 잃어버린다고 말한다.

대한 진위여부만을 묻는다. 이때 ‘누군가’는 비전제적으로만 해석된다.

‘누구’와 ‘누군가’는 평서문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6ㄷ)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말을 더듬는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여기에서 ‘누구(ㄷ)’는 그 대상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하는 전제적 해석만 가능하다. 그러나 (6ㄹ)의 ‘누군가’는 전제적 해석에 더불어, ‘불특정한 어떤 사람’의 의미로 비전제적 해석 또한 가능하다.

‘누군가’는 ‘누구’에 비하여, 비전제적 어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의문문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요구하는 의문사로서 둘 다 비전제적 해석을 가지지만, 평서문에서는 ‘누군가’만 비전제적 해석이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비전제성을 초점-민감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양화사들 사이의 영향권 관계

문장에서 각자 자신의 영향권을 가진 양화사들은 다른 양화사의 영향권과 갖는 관계에 따라 의미 해석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초점도 양화사와 마찬가지로 영향권을 가지면서 양화사 문장의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본고에서는 초점에 민감한 일부 약 양화사에 초점이 주어졌을 때, 양화사 문장의 의미 해석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에 중점을 두어 자료를 관찰하고자 한다. 먼저 양화사들의 영향권 변화에 따라 의미 해석에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경우들을 살펴보고 나서, 이러한 양화사 문장들에 초점이 없혀 의미 해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자료는 2002년 세종 원시 말뭉치에서 각 양화사들을 가진 용례를 검색하여 수집한 후,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는 단순한 문장으로 수정하여 영향권을 비교하였다.

강 양화사와 약 양화사 사이의 영향권 비교

먼저 기본적인 양화사의 영향권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 양화사 문장에 강 양화사와 약 양화사가 함께 등장하는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강 양화사인 ‘모든+명사’, ‘모두’, ‘대부분의+명사’와 약 양화사로 ‘어떤+명사’, ‘기껏해야_세 명의+명

사'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강 양화사 '모든+명사', '모두'와 약 양화사 '어떤+명사'를 말뭉치에서 검색하였다.

주어(강 양화사) + 목적어 등(약 양화사) + 서술어

타동사 구문(ㄱ) 외에도 비능격(ㄴ)/비대격(ㄷ) 구문도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모습의 문장들을 첫 번째 유형으로 삼았다. 그리고 검색식을 이용하여 용례를 검색·수정하였다.

- (7) ㄱ. 모든 학생⁷⁾이/모두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 ($\forall > \exists, \exists > \forall$)
- ㄴ. 모두가 어딘가에서 노래하였다. ($\forall > \exists, \exists > \forall$)
- ㄷ. 모두가 어딘가에 갔다. ($\forall > \exists, \exists > \forall$)
- (8) 검색식: 모든_+(이)가_@_어떤, 모두가_@_어떤, 모두_@_어떤, 모두_@_어[ㄷ, ㄴ, %]*
 - ㄱ. 모든 사람이 어떤 색에 대해 같은 느낌을 갖는다. ($\forall > \exists, \exists > \forall$)
 - ㄴ.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forall > \exists, \exists > \forall$)
 - ㄷ. 노사 양측 모두가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forall > \exists, \exists > \forall$)
 - ㄹ. 이 영역들은 모두 과학 그리고 더 나아가 학문이라고 하는 어떤 공통적 관심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forall > \exists, \exists > \forall$)

(8ㄹ)은 약 양화사가 밑줄 그어진 “과학 그리고 더 나아가 학문이라고 하는”이라는 부분에 의하여 맥락적 한정을 받기 때문에 비전제적 해석이 불가능하여, 약 양화사가 넓은 영향권만을 갖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강 양화사인 주어가 앞에 오고, 약 양화사인 목적어 등이 뒤에 오는 경우, 약 양화사에 특별한 한정 표현이 붙지 않으면 정상 영향권과 역전 영향권 둘 다 가능하게 되어 문장이 의미 해석상의 중의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주어(약 양화사) + 목적어 등(강 양화사) + 서술어

- (9)⁸⁾ ㄱ. 어떤 사람이 모든 학생을/모두를 만났다. ($*\forall > \exists, \exists > \forall$)

7) 문장에서 비교되고 있는 양화사는 찾아보기 쉽도록 굵은 글씨로 표시한다.

- ㄴ. 어떤 사람이 모든 방에서 노래하였다. (* $\forall > \exists$, $\exists > \forall$)
- ㄷ. 어떤 사람이 모든 나라에 갔다. (* $\forall > \exists$, $\exists > \forall$)
- ㄹ. 어떤/한 교수가 대부분의 학생들을 만났다. (* $\text{most} > \exists$, $\exists > \text{most}$)
- ㅁ. 기껏해야 세 명의 학생이 모든/대부분의 과목을 듣는다.
(* $\forall > \text{at most } 3$, $\text{at most } 3 > \forall$)

(10) 검색식: 어떤 +(이)가 @ 모든

- ㄱ. 어떤 사건이 모든 사람들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 $\forall > \exists$, $\exists > \forall$)
- ㄴ. 어떤 기질이 남녀 모두에게 나타난다. (* $\forall > \exists$, $\exists > \forall$)

약 양화사인 주어가 앞에 오고, 강 양화사인 목적어 등이 뒤에 오는 경우, 정상 영향권의 해석은 가능하지만, 역전 영향권의 해석이 나타나지 않아서 중의성을 가지지 않는다.

목적어 등(약 양화사) + 주어(강 양화사) + 서술어: 뒤섞기

- (11) ㄱ. 어떤 사람을 모든 학생이/모두가 만났다. (* $\forall > \exists$, $\exists > \forall$)
- ㄴ. 어딘가에서 모두가 노래하였다. (* $\forall > \exists$, $\exists > \forall$)
- ㄷ. 어딘가에 모두가 갔다. (* $\forall > \exists$, $\exists > \forall$)
- ㄹ. 어떤/한 교수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났다. (* $\text{most} > \exists$, $\exists > \text{most}$)
- ㅁ. 기껏해야 세 명의 교수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났다.
(* $\forall > \text{at most } 3$, $\text{at most } 3 > \forall$)

(12) 수정된 용례

- ㄱ. 어떤 일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다. (* $\forall > \exists$, $\exists > \forall$)

8) 이 유형에 대해 "한국어의 '모두'는 복수형이며 개체보다는 집합적인 성격이 강한 표현으로, 배분자질이 없기 때문에 양화사인상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있고, 또 "약 양화사를 가진 주어가 뒤섞기되어 핵 영향권으로 재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자에서의 전체적 해석만 가능하다."로 설명하는 입장도 있다. 그런데 (ii)의 문장에서 '대부분의 학생들' 또한 '모두'와 같이 역전 영향권으로 해석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집합적 성격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갖는지 보겠다.

‘주어(강 양화사) + 목적어 등(초점화 가능한 약 양화사) + 서술어’, ‘목적어 등(강 양화사) + 주어(초점화 가능한 약 양화사) + 서술어: 뒤섞기’

- (15) ㄱ. 모든 학생이 누군가를 밀쳤다. (∀ > ∃, ∃ > ∀)
 ㄴ. 모든 학생을 무언가가 물었다. (∀ > ∃, ∃ > ∀)

(16) 검색식: 모두 @ 누군가*, 모두 @ 무언가*

- ㄱ. 그것도 지루해지면 모두 일어서서 스크럼을 짜고서 보트의 난간에 올라가 누군가를 밀쳐 떨어뜨리기를 하기도 했다. (∀ > ∃, ∃ > ∀)
 ㄴ.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믿고 싶어 한다. (∀ > ∃, ∃ > ∀)

(15ㄱ)은 (7)과 같은 유형이고, (15ㄴ)은 (13)과 같은 유형이다. 이 문장들은 약 양화사가 전제적으로도, 비전제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의성을 가지며, ‘어떤+명사’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주어(초점화 가능한 약 양화사) + 목적어 등(강 양화사) + 서술어

- (17) ㄱ. 누군가가 모든 학생을/모두를 밀쳤다. (*∀ > ∃, ∃ > ∀)
 ㄴ. 누군가가 모두에게 전화하였다. (*∀ > ∃, ∃ > ∀)
 ㄷ. 누군가가 모든 나라에 갔다. (∀ > ∃, ∃ > ∀)

(17)의 타동사 구문(ㄱ)과 비능격 구문(ㄴ)은 (9ㄱ/ㄷ)와 같이 약 양화사가 넓은 영향권을 갖는 해석만 가능하다. 그러나 (17ㄷ)의 비대격 구문에 있어서는 ‘누군가’, ‘무언가’가 오면 약 양화사가 좁은 영향권을 갖는 해석도 가능하게 되어, 중의성을 가진다.

목적어 등(초점화 가능한 약 양화사) + 주어(강 양화사) + 서술어: 뒤섞기

- (18) ㄱ. 누군가를 모든 학생이/모두가 밀쳤다. (∀ > ∃, ∃ > ∀)
 ㄴ. 누군가에게 모두가 전화하였다. (∀ > ∃, ∃ > ∀)

- ㄷ. 누군가에게 모두가 초대받았다. ($\forall > \exists, \exists > \forall$)
- ㄹ. 무언가를 모든 학생이/모두가 먹는다. ($\forall > \exists, \exists > \forall$)

(19) 수정된 용례: 누군가에 대해 모든 사람이 같은 느낌을 갖는다. ($\forall > \exists, \exists > \forall$)

‘어떤+명사’를 목적어 등으로 가지면서 뒤섞기된 (11)의 유형은 약 양화사가 넓은 영향권을 갖는 해석만 가능하다. 그러나 약 양화사를 ‘누군가’, ‘무언가’로 바꿔 넣으면, 약 양화사가 좁은 영향권을 갖는 해석도 가능하게 되어, (18)과 같이 중의성을 가진다.

초점화 여부에 따른 양화사의 영향권 비교

약 양화사의 초점 민감성에 따라 형성될 수 있는 영향권 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앞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18)을 가지고 초점에 민감한 약 양화사 ‘누군가/무언가’가 강 양화사와 가지는 영향권 관계를 초점 여부에 따라 비교해 보겠다.

타동사와 비능격 구문에서 약 양화사가 초점화 여부에 따른 영향권

- (20) [누군가를 [모든 학생이 밀쳤다]] ($*\forall > \exists, \exists > \forall$)
- (21) 누군가를 모든 학생이 밀쳤다. ($\forall > \exists, * \exists > \forall$)

(20)과 같이 초점을 받지 않았을 경우, 약 양화사가 표면 형태에서 VP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논리 형태에서 핵 영향권으로 사상되기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 양화사보다 넓은 영향권을 가지며 전제적으로만 해석된다.

어떤 요소에 초점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대화 맥락에서 여러 비교의 대상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21)의 ‘누군가’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요소들을 찾기 힘든 의미적 특성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약 양화사의 초점 구문은 의미적으로 약 양화사만의 초점화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 동사구 등의 초점화라고 간주해야 한다(박정섭 1999). 한국어에서는 아래의 초점 투사 규칙을 적용하여 약 양화사로부터 초점이 동사구로 투사되어 형성되는 초점 구문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초점화되는 영

역을 초점 연산자의 영향권이라고 볼 수 있다.

(22) 한국어의 초점 투사 규칙: 핵심어 / 논항 구조를 위한 초점 투사

α 가 β 의 논항인 $[F \dots \alpha \dots \beta]$ 과 같은 구조에서, α 가 β 의 논항이고, α 와 β 사이에 또한 β 의 논항인 α' 이 나타나지 않을 때, α 가 초점 표지이다. (최재웅·이민행, 1999)

이 규칙은 초점 구문 안에 초점을 제외하고 다른 논항을 가지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표면 형태에서 나타나는 ‘초점을 받는 약 양화사+강 양화사+VP’의 순서는 논리 형태에서 초점 구문의 형성을 위하여 강 양화사는 약 양화사와 자리를 바꾼다. 더 나아가 항상 전제적으로 해석되는 강 양화사가 비전제적 해석을 피하기 위하여 초점 구문(초점의 영향권)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약 양화사에 초점을 받은 (21)의 논리 형태는 최종적으로 (23)과 같은 형태로 해석된다.

(23) [모든 학생이 $[F$ 누군가를 $_F$ 밀쳤다]] ($\forall > \exists, * \exists > \forall$)

초점 구문 안의 요소들은 비전제적으로 해석되고, 밖의 요소들은 전제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바탕으로, 초점 구문이 핵 영향권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초점을 받는 약 양화사의 격에 따른 영향권 비교

- (24) 가. $[[F$ 누군가가 $_F]$ [모든 학생을 만났다]] ($*\forall > \exists, \exists > \forall$) 타동사 구문
 나. $[[F$ 누군가가 $_F]$ [모두에게 전화하였다]] ($*\forall > \exists, \exists > \forall$) 비능격 구문

- (25) 누군가가 모든 나라에 갔다. ($\forall > \exists, \exists > \forall$) 비대격 구문
 가. [누군가가 [모든 나라에 갔다]] ($*\forall > \exists, \exists > \forall$)
 나. [모든 나라에 $[F$ 누군가가 $_F$ 갔다]] ($\forall > \exists, * \exists > \forall$)

목적어의 초점화는 약 양화사가 핵 영향권에서 비전제적으로 해석되도록 하기

때문에, 영향권에 변화를 일으키지만, 타동사나 비능격 구문의 주어 위치의 약 양 화사는 초점화가 되더라도 초점구문이 VP 밖에 형성되므로 그 영향권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능격 구문의 주어가 타동사의 주어처럼 본래 주어의 위치에 있던 통사 구조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비대격 구문은 동사 뒤의 Theme의 의미역을 가진 목적어 위치에 있던 명사가 격을 부여 받기 위하여 주어의 위치로 옮겨진 통사적 구조를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VP 안에서 형성된 비대격 구문의 주어는 Diesing(1992)의 전사 가설에 따라 타동사의 목적어처럼 핵 영향권에서 해석될 수 있다.

초점의 영향권

초점 구문은 운율 구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박철우(2003)는 문장에 초점이 부여된 곳을 억양핵으로 표시하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 대하여 ‘운율적 돌들림’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 (26) 가. 너 어제 어디에서 숙제했니?
나. (어제) | 9) 집에서_F (숙제했어).
다. 너 어제 어디에서 뭐 했니?
르. (어제) | 집에서_F | 숙제했어_F.
모. (어제) | 집에서 숙제했어_F.

(26나)은 (26가)에 대한 대답으로 ‘집에서’가 초점으로 작용하며, 화제인 ‘어제’와 ‘숙제했어’를 생략시키면서 배제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26르, 모)은 (26다)에 대한 대답으로 말의 속도와 스타일에 따라서 새로운 정보 두 개를 한 말토크이나 두 말토크로 말할 수 있다.

이호영(1996)에서는 문장의 가운데에 있는 구성 요소가 부분 초점을 받을 때, 즉 전제적 해석을 받는 요소가 초점 앞에 나타날 때에는 초점을 받는 요소 바로 앞에

9) ‘|’는 말토크 경계(rhythm unit)를 나타내며, 여기에는 휴지(pause)가 부과된다(이호영1996).

총 합

앞서 언급하였듯이 문장 안에 여러 양화사가 있으면, 이들 사이의 영향권의 크기가 파악되어야 한다. 특히 강 양화사와 약 양화사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양화사들의 영향권 다툼에 의하여 중의성을 가질 수도 있다. 강 양화사는 항상 전제적 해석을 받아 핵 영향권 바깥에서 해석되지만, 약 양화사는 수의적으로 전제적/비전제적 해석을 가지기 때문이다. 약 양화사가 주어이든 목적어이든 표면 형태에서 VP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제적 해석만을 받게 된다. 그런데 타동사의 목적어나 비대격 주어 등의 약 양화사가 초점에 민감한 경우에는 비전제적 해석도 가능하게 되어 중의적인 문장이 된다. 표면구조상 VP 밖에 위치한 약 양화사라도 초점화되면, 초점투사를 통하여 논리 형태에서 형성된 초점의 영향권(초점 구문) 안에 들어있게 된다. 이때의 초점이 가지는 영향권은 핵 영향권과 일치한다. 즉, 초점은 안에 있는 약 양화사가 핵 영향권 안에서 비전제적으로 해석되도록 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참고문헌

- 강범모 외. 1999. 형식 의미론과 한국어 기술. 한신문화사.
- 김광섭. 2003. 양화사의 영향권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생성문법연구 13-2. 한국생성문법학회.
- 박정섭. 1999. 뒤섞기와 양화사의 작용역, 생성문법연구 9-2. 한국생성문법학회.
- 박철우. 2003.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도서출판 역락.
- 이준호. 2003. 일반양화사와 전제, 영어학 연구 16. 한국영어학학회.
- 이현우. 1995. 현대 국어의 명사구의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호영. 1996. 국어 음성학. 태학사.
- 최재웅, 이민행. 1999. 초점, 형식 의미론과 한국어 기술 제4장. 한신문화사.
- Barwise, Jon and Robin Cooper. 1981. Generalized Quantifiers and Natural Language, Linguistics and Philosophy 4: 159-219. Springer.

- Diesing, M. 1992. *Indefinites*. Cambridge, Mass: MIT Press.
- Hajicová 등. 2002. 고석주(역). 주제-초점, 삼분구조, 의미 내용. 도서출판 월인.
- Heim, Irene and Angelika Kratzer. 1998. *Semantics in Generative Grammar*. Blackwell Publishers.
- Krifka, Manfred. 2007. Basic notions of information structure, in C. Fery and M. Krifka (eds.),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Information Structure 6*, Potsdam.
- Partee, Barbara H. 1991. Topic, focus and quantification, in S. Moore and A. Z. Wyner (eds.), *Proceedings from 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I*. Cornel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 Rooth, Mats. 1985. *Association with Focus*. Ph.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Massachusetts, Amherst.
- Rooth, Mats. 1996. Focus, in S. Lappin (ed.)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 London: Blackwell Publishers.

1 차원고접수 : 2008. 5. 31

최종게재승인 : 2008. 6. 4

(Abstract)

Scope Relations Between Quantifier and Focus

Yu-mi Jo

Department of Lingu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scope relations between quantifier and focus which are represented in quantified sentences. In the sentence which has both strong quantifier and weak quantifier, one of them has a wide scope and a presuppositional reading, and the other which has a narrow one is interpreted non-presuppositionally. In Korean, when a weak quantifier is separated from VP in surface representation, whether it is a subject or an object, it has only a presuppositional reading. Therefore, there is no scope ambiguity in that sentence. However, when weak quantifier which is an object of transitive verb or a subject of unaccusative verb is sensitive to focus, it is available to non-presuppositional reading, so that the sentence seems to be ambiguous. Once even weak quantifier out of VP in the Surface structure is focused, it becomes to be in the scope of focus (focal phrase) which is formed in Logical form by a focus projection. And this scope of focus corresponds to a nuclear scope. That is to say, focus operates on the weak quantifier to be interpreted non-presuppositionally in a nuclear scope.

Keywords : quantifier, focus, scope, weak quantifier, non-presuppositional reading